

2023 4 12 일 수요일

죽어 살기 대신

똥라 고 말하지?

쪽'라 고 마 누 지 ?  
 노들 엄마가 옷을 챙겨 가지고 갔다.

어디까지나 원시적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

₩ 56 염마이웃은 풀려나려

웃음기 힘들어요.

